"환우의 시선, 가족의 마음"…따뜻한 여정 동행한다



광주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 회복까지 맞춤형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'회복의 공간', '가족 같은 돌봄이 이뤄지는 공간'을 지향하며 개원 이후 줄곧 사람 중심의 의료를 실천해왔다. 특히 '내 부 모를 모실 수 있는 병원'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세심한 돌봄을 병행하며 환자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확립했다.





도심 속 프리미엄 요양 인프라 구축 '호평' 양·한방 협진 맞춤형 치료…시너지 극대화 연탄·김장 봉사 지속 지역사회 상생 모범 "내 부모, 내 가족처럼" 환자 중심 철학 우선

◇내 부모처럼 공경하는 병원

동행재활요양병원이 강조하는 철학은 '모심 (母心)의 자세', 즉 환자를 내 부모처럼 공경하 고모시는 태도다.

이러한 철학은 병원 운영 전반에 고스란히 나 타난다. 병원 내부 교육에서 항상 '환자는 고객 이자 가족'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모든 직원이 이를 공유하고 실천한다. 환자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보호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는 문 화가 자리 잡고 있다.

류기준 대표원장은 "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환자와 가족이 병 원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"며 "치료뿐 아니라 환 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"고 말했다.

◇도심 속 호텔 같은 쾌적한 공간과 서비스

동행재활요양병원은 시설 면에서도 눈에 띄 는 차별화를 보여준다. 총 지하 5층, 지상 12층 규 모에 연면적 1만7천268㎡(약 5천200평)라는 대 형 병원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며 104실 409병상 을 갖추고 있다.

지하 주차장에는 175대 수용이 가능한 넓은 주 차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이는 보호자들의 병문 안 및 외래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

병실은 1인실부터 6인실까지 다양하게 구성 돼 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격리병실도 별도 로 마련돼 있어 고위험 환자도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다.

특히 18실 36병상 병상 규모의 VIP 병동은 타 병원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형 시설을 갖추고 있 다.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과 면 회실까지 완비돼 있어 병원이 아닌 '쉼터'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.

병동 내 복도는 폭이 넓고 환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답답하지 않으며 병원 전체가 장애 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 모든 연령층의 환자 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.

◇'하늘재활센터' 중심 재활 특화 병원…16종 치 료프로그램 운영

재활치료는 요양병원 경쟁력의 핵심이다. 동 행재활요양병원은 11층에 위치한 '하늘재활센 터'를 중심으로 중추신경계, 근골격계 회복 재활 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.

이곳은 광주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쾌 적한 전망과 풍부한 자연 채광을 통해 재활 환자 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고 있다.

재활의학과 전문의, 작업치료사, 물리치료사, 어어치료사 등 50여명의 전담 치료팀이 상주하 며 환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한다. 주요 프로 그램으로는 보행재활, 연하재활, 운동치료, 전기 자극치료, 언어치료, ADL치료, 통증치료, 도수 치료, 작업치료, 전산화인지재활 등 16종 이상의 전문 치료가 상시 제공된다.

입원 환자뿐 아니라 다수의 외래 환자도 이곳 에서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수술 후





일상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.

간병 병동 역시 주목할 만하다. 간병 인력이 상 주하며 61 밀착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 족들이 마음 놓고 환자를 맡길 수 있다. 실제 간 병 병동은 예약 대기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높으 며 병원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간

병 인력 확충과 관리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.

> ◇양·한방 통합치료… 젊고 유능한 전문 의료진 운

동행재활요양병원은 양방과 한방이 유기적으로 협진하는 통 합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. 류기준 대표원장을 비롯한 시스템은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.

한방 분야에서는 침, 부항, 뜸, 약 침, 탕약 등을 병행하며 특히 통증, 불면, 우울, 위장 장애 등 노년기 만성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맞춤형 처방이 이뤄진다. 양방에서는 진단 및 치 료계획 수립, 약물조절,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병행된다.

특히 의료진 대부분이 40대 이하의 젊은 의사

들로 구성돼 있어 최신 의학 정보에 밝고 환자와 의 소통도 원활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. 환자 보 호자들은 "의사들이 직접 병실이나 치료실까지 찾아와 환자의 상태와 검사결과를 설명해준다", "말이 잘 통하고 공감해줘 신뢰가 생긴다"고 평

◇나눔 실천, 따뜻한 동행

'동행'이라는 병원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닌 철학이자 실천 목표다. 병원은 해마다 다양한 사 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

대표적으로 김장 나눔 행사, 붕어빵데이, 어르 신 생신잔치, 이·미용 봉사, 장수사진 촬영, 성탄 절산타이벤트 등은 병원 환자들에게 삶의 활기 를 불어넣는 중요한 행사들이다. 지난해 12월24 각 분야 전문의들의 협진 일 병원 1층 로비에서는 산타 복장을 한 직원들 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 는 '동행나눔 기부행사'가 열렸다. 직원 30여명 이 참여해 마련한 수익금 500만원과 현물 700만 원 전액은 북구청에 전달돼 취약계층 지원에 쓰

> 이와 함께 광주장애인체육회 후원, 통합돌봄 사업 참여, 관내 복지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실 천하고 있다. /정은솔기자

류기준 동행재활요양병원 대표원장

"진심이 담긴 돌봄…치유와 회복 최선"

"진정한 돌봄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 에서 시작됩니다.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 럼 생각하는 병원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상입니다."

류기준 동행재활요양병원 대표원장은 '돌 봄의 본질'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. 지난 2 019년 문을 연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올해로 개 원 6주년을 맞았다. 류 원장은 병원 설립 초기 부터 '내 부모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병원' 을 만들겠다는 소신으로 병원 환경과 진료 체 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.

그는 "요양병원은 단순히 환자가 머무는 공 도운영 중이다. 간이 아닌 회복과 존엄을 지켜주는 치유의 공 간이어야 한다"며 "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의 료 인력으로 인해 생긴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최신 시설 도입과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했다"고 설명했다.

류 원장은 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다. 병원은 환자가 장기간 머무 는 곳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하 루라도 빨리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 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.

그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환자가 치료를 마 친 후에는 신속히 퇴원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.

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병상 간 간격부 터 프로그램 구성에 이르기까지 병원 곳곳에 서 드러난다. 현행 법 기준보다 넓은 병상 배 치로 환자들의 생활 여유를 확보했고 기억력 저하나 치매를 겪는 고령 환자들이 병상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

특히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의료진의 마음 가짐에서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.

류 원장은 "우리 병원의 간호사, 치료사, 의 사들은 부모를 대하듯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 려 노력한다"며 "이러한 돌봄 문화가 병원 전 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힘써왔다" 고 말했다.

병원에 대한 신뢰는 실제 사례에서도 드러 난다. 일부 의료진의 부모님이 병원에서 치료

+



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경우도 적지 않 다. 이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부 구 성원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.

병원이 광주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것도 환자와 가족 모두를 배려한 결정이다.

류 원장은 "가족이 자주 찾아올 수 있어야 환자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낀다"며 "도심 속 병원은 환자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, 가족 에게는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"고 설명했다.

동행재활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 고도화, 친환경 인프라 구축, 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 해 '제2의 도약'을 준비 하며 지속 가능하고 따 뜻한 병원,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으 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류 원장은 "환자와 가족, 그리고 지역사회 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"라며 "환자 한 분 한 분의 회복과 치유 과정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의료 환경을 조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이어 "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환자와 가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"고 포부를 밝혔다. /정은솔기자